



애니멀 디펜스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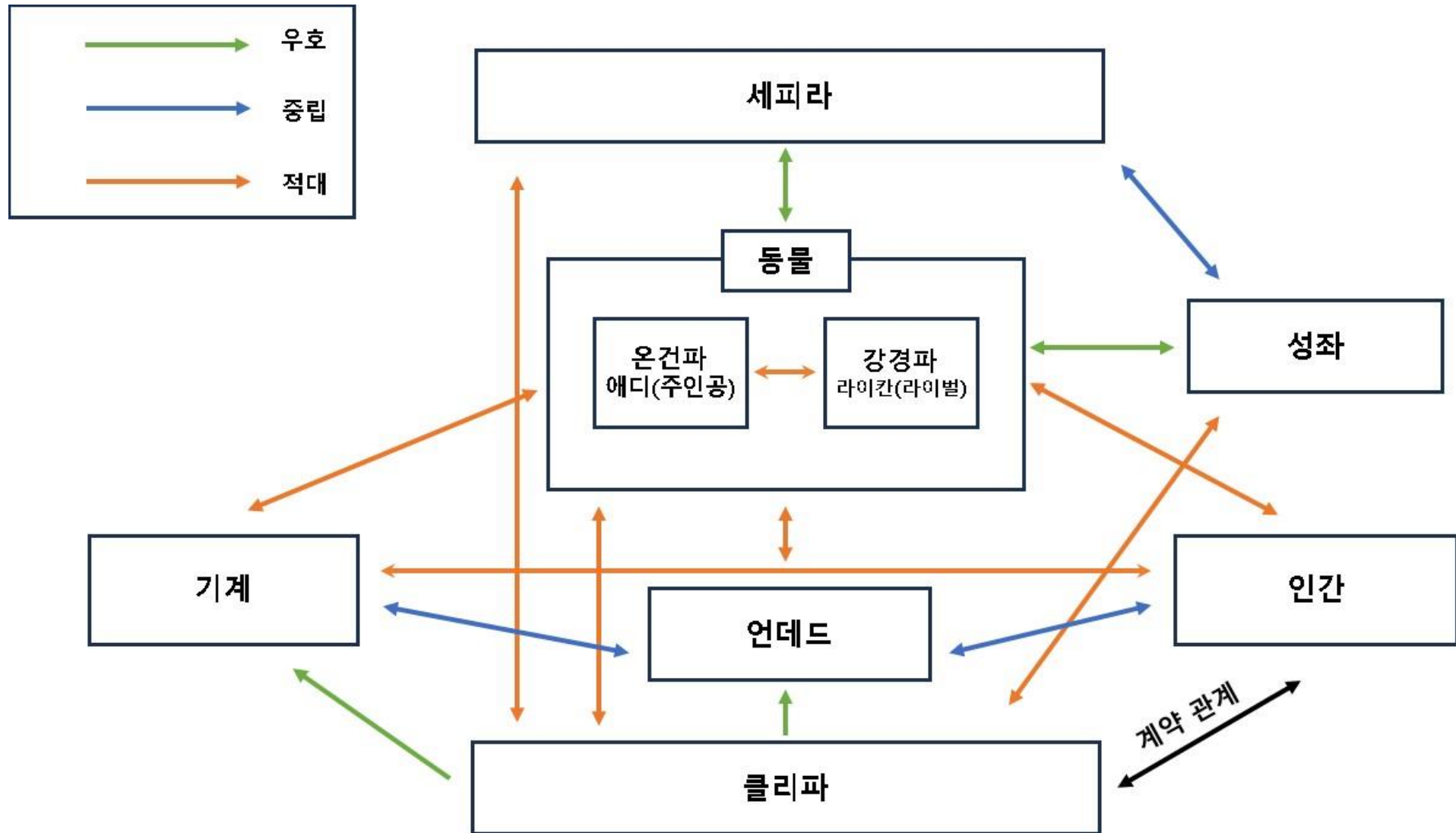
노치영

업데이트 기록			
날짜	내용	작성자	패치 내역
2024.03.28	시나리오 작성	노치영	1.0.0
2024.03.29	시나리오 작성	노치영	1.0.1
2024.03.31	갈등 구조 수정 및 시나리오 작성	노치영	1.1.0
2024.04.02	갈등 구조 수정	노치영	1.1.1

목차

갈등 구조.....	4
Chapter 1 숲의 위협.....	5
Chapter 2 고대의 유물	11
Chapter 3 성좌	21
Chapter 4 빛과 어둠의 나무	30

갈등 구조



Chapter 1 숲의 위협

평화로운 어느 날 세계 곳곳에 고대의 마법과 생명의 힘을 품은 세계수가 자라 수많은 산림이 형성되었고 그중 단 세 그루의 나무 '이그드라실'에 태초의 정수가 깃들었다. 태초의 정수에 의해 동물들은 힘과 지성을, 생을 마감한 생명체에겐 죽지 않는 부활을, 지성체가 만든 기계엔 자의식과 감정을 부여했고, 변질되지 않은 태초의 정수를 가진 동물들을 노리는 다양한 적들과의 다툼은 끝이 나지 않지만, 동물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 훗날 세계를 뒤바꿔 놓는다.

#S1 타이거 타운

녹색빛으로 물든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대삼림 에메랄드 포레스트는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힘으로 지성과 힘을 얻은 후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 힘의 간극이 줄어 오랜 기간 동안 종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늘어났다.

에메랄드 포레스트 북쪽에 위치한 타이거타운에 다른 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경비하던 호랑이 애디는 평소와 같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때 평화로운 숲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한 애디는 세계수에 접근하는 언데드 부대를 목격한다.

‘저 것들은 뭐야?’

애디는 놀라며 서둘러 언데드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갔다.

애디는 타이거 타운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강력한 발톱과 힘으로 언데드들을 가뿐하게 처치했지만 어째서인지 언데드는 계속해서 일어날 뿐이었다.

‘어떻게 죽었는데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애디는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이에 타이거 타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타이거 타운으로 향한다.

“모두 큰일 났어요! 적이 침입 했습니다!”

애디의 큰 목소리가 타이거 타운에 울려 퍼지자, 호랑이 주민들이 나타나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언데드들을 힘들게 막으려고 노력한다.

“애디 이 것들은 또 뭐야”

호랑이 주민 중 한 동물이 언데드와 몸싸움을 하며 애디에게 묻는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죽어도 자꾸 되살아나니 조심하세요”

애디는 소리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준다.

대부분의 언데드들을 제압했지만, 아직 되살아나는 언데드들이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는 그때 토끼 마법사 래비가 나타나 언데드가 있는 지역에 썬더 볼트가 내리꽂아지며 남은 언데드를 처치하여 타이거 타운을 지켜내게 된다.

“애디 어디서 이런 걸 끌고 온 거야”

몸 주변에 마나가 일렁이며 도도한 표정으로 래비가 애디에게 묻는다.

전투를 마친지 얼마 안 된 애디는 얼굴을 찡그린 채 숨을 헐떡이며 대답한다.

“허억... 헉.. 나도.. 잘 모르겠어.”

애디는 숨을 고르고 언데드의 시체에서 자그마한 죽음의 정수를 발견하고 이 정수를 집어 관찰한다.

가까스로 언데드를 막아낸 호랑이 주민들과 래비는 언데드들의 위협에, 심각성을 느끼고 다른 종 간의 화합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 녀석들은 종족 간 싸움의 스케일이 아닌 것 같아. 또 다시 이 놈들이 찾아온다면 미리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

애디는 심각한 표정으로 래비에게 말하고, 생각에 잠긴 래비는 애디에게 대답한다.

“맞아 우리만 힘을 얻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긴 했지만 설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애디와 래비는 서둘러 모든 종족들을 불러 모아 에메랄드 포레스트 중앙 지역 신록의 정원으로 모으게 된다.

#S2 신록의 정원

신록의 정원에는 세계수 '이그드라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유일하게 다른 종족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장소이다. 수많은 종족들의 대표와 부대표가 신록의 정원 회의장에 하나 둘 씩 모이게 되는 모습이 보인다.

애디는 회의장 가운데에 죽기 직전에 포획을 한 언데드를 던지며 다른 동물들에게 외친다.

언데드는 기분 나쁜 비명을 지르며 움직인다.

“구어어... 어...우....”

“이 언데드들은 타이거 타운에서 나타났으며 죽여도 계속 부활하며 생명을 해치는 녀석들입니다. 저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도 큰 피해가 갈 겁니다.”

그러자 늑대 종족의 대표인 라이칸이 소리를 지르며 말한다.

“이제 와서 뭉치겠다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동포들을 죽인지는 알고 있나?”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 지며 애디는 잠시 당황하지만 얼굴을 굳히며 말한다.

“많은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분명 우리는 이제까지 싸워왔지만 지금부터 힘을 합쳐야 합니다.”

라이칸의 발언을 듣고 나뭇가지 위에 조용히 있던 까마귀 종족의 대표인 크로우가 말한다.

“라이칸 마치 너희들은 아무도 안 죽었다는 듯이 말하는 군”

그러자 라이칸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한다.

“너희 지역은 식량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란 말이다.”

“그럼 다수결로 정하죠. 언데드로부터 화합하여 같이 싸울 동물들은 이스트 그로브에 그냥 각자 알아서 살 동물들은 웨스트 그로브에 어때요?”

토끼 종족의 대표 래비는 태연한 표정으로 의견을 말했다.

“우리는 원래도 웨스트 그로브에 있었지만 따르지 않겠다면 자원도 없는 웨스트 그로브에 처박아두겠다니 기상천외한 발언이구나 토끼”

라이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래비를 쳐다보곤 자리를 박차며 회의장을 나간다.

라이칸이 나가자 래비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당연히 지키는 쪽이 유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식 하긴”

여러 종족들은 평소 존재하던 갈등으로 분열이 발생하고, 다수결 투표로 인해 온건파와 강경파로 세력이 나뉘게 되며 일부 종족과 동물들은 온건파와 강경파를 고르지 않은 채 흩어지게 된다. 다수의 종족들이 온건파를 택하여 이스트 그로브에 남게 되고 힘의 불균형을 느낀 강경파 세력의 소수의 종족들과 동물들은 강제로 에메랄드 그로브의 서쪽 지역인 웨스트 그로브로 향하게 된다.

#S3 이스트 그로브와 웨스트 그로브의 경계

웨스트 그로브에서 생존을 이어나가던 강경파는 사막 살라바흐에 맞닿아 있어 자원이 점점 부족해 지기 시작했고 이에 소수의 강경파 동물들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웨스트 그로브와 북서쪽 이스트 그로브의 경계에 침범한다.

이스트 그로브 북서쪽에서 순찰하고 있던 뱀 종족의 스네이키는 라이칸을 발견하고 말을 건다.

“식식식 뭐야 라이칸~ 웨스트 그로브에 짱 박혀있기로 한 거 아니었어?”

라이칸은 발각당했지만 스네이키를 발견하고 그리 놀라지 않은 채로 대답한다.

“스네이키 의외였어 네가 온건파에 남다니 뱀종족의 대부분은 강경파로 넘어왔는데 말이지”

“적당히 자리 지키고 있으면 부족한 것 없는데 남아서 나뵈는 것 없지 식식식..”

라이칸은 스네이키의 대답을 듣고 헛웃음을 치며 대답한다.

“역시 간사한 녀석이군”

스네이키는 강경파의 인원에게 눈치를 보며 대답한다.

“식식 뭐 일단 적당히 쏘시고 가라고”

라이칸이 숲 안을 들어가려는 순간 북쪽 숲 부근에서 기계 몬스터가 나타나며 강경파 세력과 스네이키를 공격하게 되고 이들은 임시로 힘을 합쳐 기계 몬스터를 막게 되며 기계 몬스터의 출현을 급하게 전달받은 온건파는 이스트 그로브 북서쪽에 지원을 오게 된다.

“식식 곤란한 분이 오셨군”

스네이키는 기계의 몸을 능숙하게 꺾으며 애디의 등장을 확인한다.

“라이칸 어떻게 된 일이지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될 텐데?”

애디는 기계 몬스터를 저지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라이칸에게 말한다.

“지금 상황에 그게 중요한가? 말할 여유까지 있고 대단하군”

라이칸은 한 손으로 기계 몬스터를 여유롭게 제압하며 대답한다.

“이 녀석들만 막게 되면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이칸!”

애디는 기계 몬스터를 걱정적으로 막으며 라이칸에게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도 대충 막다 우린 빠질 예정이다. 열심히 막아보라고”

온건파와 강경파는 잠시 휴전을 맺게 되고 라이칸은 전투 도중 퇴로를 발견하고 강경파를 데리고 벗어난다.

강경파의 활약으로 기계 몬스터를 수월하게 이겨 나가게 되는 와중 기회를 틈탄 인간이 갑자기 등장하여 동물들에게 위기가 생긴다.

“인간이다! 한동안 안 보였는데 어디선가 그득그득 살아 있었나 보군”

인간을 발견한 애디는 동물들에게 소리치며 주의를 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죽어가던 기계 몬스터가 인간을 공격하며 상황이 종료되게 된다.

힘겹게 전투를 마친 애디는 숨을 고르며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애디와 래비는 언데드에 이어 기계 몬스터와 인간이 나타나자, 힘을 키우기 위한 모험을 준비하게 되고 고대의 물건이 자주 발견된다는 살라바흐로 떠나게 된다.

Chapter 2 고대의 유물

끝 없는 금빛 사막을 지나던 애디와 래비는 사막 한 가운데 세계수와 그 주변엔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 도시 살라바흐가 보인다.

#S4 살라바흐

살라바흐에 도착한 애디와 래비는 그곳에 있던 전갈 종족의 대표 스콜피를 만나게 된다.

“숲속 동물들이 사막에 찾아오다니 어떤 일ियो?”

스콜피는 애디와 래비를 경계하며 쳐다보고 애디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듯이 정중하게 말한다.

“다른일은 아니고 혹시 언데드와 기계, 인간들이 나타나 숲을 공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스콜피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간혹 기계들이 보이긴 했지만 우리 영역에 공격하러 오진 않았소. 굳건한 숲이 공격 받았다니 여간 보통 일이 아닌가 보오”

래비는 스콜피의 대답을 듣고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짓고 생각에 잠겼다.

‘기계들이 온 방향이면 이 곳으로 충분히 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오지 않았지?’

“먼 길에서 오느라 힘들겠지만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소?”

스콜피는 경계심이 조금 풀린듯 애디와 래비에게 한가지 부탁을 청했다.

래비는 생각에 잠기다 스콜피의 얘기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다.

“무슨 일이시죠?”

스콜피는 어두운 표정을 하며 이야기 한다.

“얼마전 오아시스 근처에 큰 동상이 발견되어 수로가 막혔는데 우리 사막 생물들은 자네들 숲속 동물처럼 강하지가 않아서 말이지”

“네 물론이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애디가 스콜피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자 스콜피의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며 애디와 래비를 안내한다.

“오오 고맙군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게나”

#S4-1 오아시스

애디와 래비는 스콜피를 따라 오아시스에 도착한다. 오아시스 끝에 호랑이의 형상을 한 동상이 수로를 막고있다.

“그럼 이것 좀 부탁하겠네”

스콜피는 애디와 래비에게 부탁을 하고 살라바흐로 돌아갔다.

‘이건...’

애디는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한 동상을 본 애디는 오묘한 감정을 느꼈다.

“애디 널 닮았네 너가 힘 좀 쓰니까 옮겨봐”

래비는 신기한 듯 동상을 보며 애디에게 말했다.

쿠우우우우우웅

애디가 동상에 손을 가져다 대자 수로를 막던 동상에서 빛이 나며 작은 사이즈로 변해 애디의 품안에 옮겨지며 막힌 수로가 뚫려 물줄기가 다시 원활하게 흐른다.

“뭐야 애디 어떻게 한거야?”

래비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애디를 쳐다본다.

“으음.. 나도 모르겠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긴해..”

애디는 한손으로 동상을 안고 머리를 부여 잡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모래 아래에서 호랑이를 본뜬 동상이 나오며 전투를 하게 된다.

애디는 전투중에 초월적인 십이간지의 힘이 개방되며 동상들을 물리치고 동상들을 쓰러뜨리자 나무 목판이 떨어지며 래비는 고대어로 적혀져 있는 목판을 줍게 된다.

“이 문자는 처음 보는 문자인데?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 힘은?”

래비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목판을 살펴보다 애디에게 묻는다.

“나도 잘 모르겠어....”

애디는 본인도 당황스러운지 한참을 가만히 있다 래비와 함께 살라바흐로 돌아간다.

#S4-2 살라바흐

수로를 막던 동상을 치워 수로가 개방되고 다시 살라바흐에 돌아온 애디와 래비는 스콜피에게 다가간다. 애디의 품에 작아진 동상을 보자 스콜피는 놀라며 말한다.

“오오 그 커다랗던 동상이 어떻게 이렇게나 작아진겐가?”

“하하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콜피는 머쓱해 하는 애디와 래비에게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오아시스 샘물을 보상으로 주며 또 한 가지 부탁을 한다.

“신세를 지고 또 부탁하긴 미안하지만 혹시 내 손녀쥬 숲에 데려가주지 않겠나? 숲속 동물을 첨봐서 그런지 숲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얼마나 졸라대는지”

애디와 래비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흔쾌히 받아들인다.

“네 그럼요 근데 손녀분은 어디있죠?”

래비가 말을 끝내자 갑자기 스콜피와 애디와 래비 사이에 모레가 아래로 가라 앉으며 스콜피의 손녀 스콜피아가 불쑥 튀어나오며 등장한다.

“얏호! 숲이다 숲~!”

애디와 래비는 깜작 놀라며 스콜피는 애디와 래비에게 스콜피아를 부탁한다.

“그럼 잘부탁하겠네. 스콜피아 말썽부리지 말아야 한다.”

“네 할아버지~”

스콜피아는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며 애디와 래비는 스콜피아를 데리고 에메랄드 포레스트로 복귀한다.

#S5 신록의 정원

신록의 정원에 돌아온 애디와 래비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선 풍경인 스콜피아는 번쩍번쩍 뛰며 숲속을 구경한다.

“우와 진짜 나무가 엄청 많다!”

스콜피아는 지나가며 나무를 가볍게 한대 툭 치지만 엄청난 파괴력과 함께 나무가 맥 없이 쓰러진다.

“어이쿠... 죄송해요 그래도 널린게 나무니까 한 그루 정도 괜찮겠죠? 히히”

애디와 래비는 스콜피아의 힘의 놀라고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신록의 정원 회의장으로 간다.

신록의 정원 회의장 정면에 엄청 큰 세계수 ‘이그드라실’을 보곤 스콜피아는 몸에서 기묘한 힘이 느껴지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와아....이렇게 큰 세계수는 처음봐요...”

그때 스네이키가 회의장에서 기어오며 스콜피아를 주시하며 다가온다.

“식식식 애디 집게 숙녀분은 어디서 데려온거야”

애디는 살라바흐에 있던 고대 유물의 발견과 그 힘의 개방 경험, 스콜피아의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식식 그러면 어디 그 동상이 널려있을지 모르는데 찾아봐야하는거 아니야?”

스네이키는 애디의 설명을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애디는 고대의 유물을 통해 강해진 힘으로 고대 유물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래비와 함께 고대어가 적힌 예언의 목판을 해석하기 위해 모험을 떠날 강한 전투력을 가진 소수정에 팀을 편성하기로 한다.

“와 재밌겠다! 저두 꺼주면 안돼요? 제발요~”

그 소식을 접한 스콜피아가 애디와 래비뒤를 따라다니며 하루종일 매달리고 있다.

“스콜피아 말했잖니 넌 견학만 하기로 한거고 위험해서 안돼”

애디는 단호하게 스콜피아에게 말하지만 래비는 스콜피아의 강함을 인정해 함께 가자고 한다.

“전투가 아닌 모험이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뒤에 있으라고 하면 되지않을까 애디?”

“정말요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게요~”

스콜피아는 래비의 말에 표정이 밝아지며 맞장구를 친다.

“하아.. 그래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내 뒤에 붙어야한다?”

애디는 짧은 한숨을 쉬며 스콜피아를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소수정에 팀은 애디, 래비, 스네이키와 전갈 스콜피아로 구성되어 애니멀 디펜서란 팀 이름을 지으며 여정을 떠나게 된다.

“얏호! 신난다 모험이다 모험~” 스콜피아는 집게손을 부딪히며 큰 목소리로 외친다.

애니멀 디펜서는 에메랄드 그로브를 떠나 북쪽으로 여정 중에 기계들이 모여있는 메탈루나 시티를 발견하게 된다.

#S6 메탈루나 시티 남쪽

메탈루나 시티에는 남쪽 외곽에는 기계와 나무가 기묘하게 얹힌듯한 세계수가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50 체가 넘어 보이는 기계 몬스터가 보였다.

“애디 어찌지? 여기서 후퇴할까?”

래비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애디에게 묻는다.

“음.. 그래 일단은 그래야겠어 여기가 아니여도 유물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존재 할 테니까”

애디는 래비의 말에 동감하여 후퇴를 결심했다.

그러자 스네이키가 웃으며 애디와 래비에게 한마디 건넸다.

“식식 이제 말해주긴 그런데 집게 숙녀가 저기 한바탕 하고 있는데?”

기계 몬스터 진영 멀리서 스콜피아가 집게팔을 흔들며 기계몬스터 5 체를 쓰러뜨린 모습이 보인다.

“아저씨 애네 별거 없는데요? 툭 치니까 쓰러져요~”

애디는 자신의 뒤쪽에 스콜피아가 파헤친 구덩이를 보며 짧은 한숨을 쉰다.

“하아.. 어쩔수 없지 일단은 지금 상황부터 해결하자.”

애디는 십이간지의 힘을 개방하며 기계몬스터를 손쉽게 해치워 나가며 스네이키는 지난번 전투에서 기계 몬스터에게 독이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조이며 강력한 톱으로 기계 몬스터를 해치워 나간다. 하지만 래비의 전격 마법은 생명 반응이 낮은 기계 몬스터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애니멀 디펜서는 각자 전투 도중 스콜피아가 기계 몬스터에게 둘러싸여 위험에 처하자 애디가 스콜피아 대신 맞으며 치명상을 입게 된다.

“으음...”

“아저씨!!!!”

스콜피아의 애디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하며 절규한다.

애니멀 디펜서의 핵심 전투원인 애디가 쓰러지며 전투가 위험해지는 순간

래비는 쓰러져 있던 기계 몬스터들의 시체에서 토끼 형상을 한 작은 장신구를 발견하게 되고 래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계 몬스터 목에 걸려있던 장신구를 잡게 된다.

그러자 래비의 손에서 화려한 빛이 나며 래비는 각성하게 되고 죽은 기계 몬스터의 부품들과 기계 몬스터들이 하나 둘 씩 합쳐지며 토끼 형상을 한 로봇이 그들의 앞에 등장하게 된다. 래비는 각성한 힘으로 토끼 기계 보스 몬스터를 해치우게 되고 토끼 기계 부품 덩어리에서 희미한 에너지가 흘러 예언의 목판에 흡수되며 나무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 그렇게 애니멀 디펜스는 기계 몬스터와의 공성전에서 승리하게 된다.

“으음..다들 고생했어”

치명상을 입은 애디가 조금 기력을 차리며 모두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스콜피아는 기운 없이 애디에게 울상인 얼굴로 사과한다.

“하하 괜찮아 스콜피아 너도 이번 전투에서 많이 활약했는걸?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주겠니?”

애디는 풀이 죽은 스콜피아를 위로하며 머리를 쓰다듬는다.

전투가 끝나고 애니멀 디펜서는 기괴하게 뒤틀린 세계수를 보며 고민에 빠진다.

“식식... 이런꼴의 세계수라니 신기하군”

스네이키는 세계수를 보며 기묘한 웃음을 지으며 혀를 내민다.

“흐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째로 에메랄드 포레스트에 옮길 수도 없고”

래비는 턱에 손을 가져다 대며 고민에 빠진 얼굴을 한다.

스콜피아는 래비의 뒷춤의 희미하게 빛나는 예언의 목판을 그림을 보며 래비의 뒷춤에서 목판을 빼며 세계수에 목판을 가져다 댄다.

“어머 스콜피아 함부로 가져가면 안돼!”

그러자 기계의 잠식되었던 세계수가 정화되며 주변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다.

애니멀 디펜서는 놀라는 얼굴을 하며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 정화된 세계수 아래에는 평소에 보던 나침반과는 다르게 생긴 동그란 구체 모양의 고대 유물 나침반을 얻게 된다.

“아직도 모르는 일 투성이군 이것도 유물인 건가?”

애디는 놀라움과 고민이 많은 표정을 하며 나침반을 줍는다.

애니멀 디펜서는 첫 공성전의 승리를 쟁취 했지만 아직 메탈루나 시티의 본거지에는 닿지 못하였으며 다음을 기약하며 신록의 정원으로 복귀하게 된다.

Chapter 3 성좌

#S7 신록의 정원

메탈루나 시티에서의 전투를 마치고 신록의 정원에 복귀한 애니멀 디펜서는 다른 종족들과 주민들에게 메탈루나 시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각자 휴식을 하게된다.

#S7-1 신록의 정원 근처 숙소

‘후 짧은 시간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군’

애디는 침대에 누어 메탈루나 시티에서 얻었던 나침반을 관찰하다가 떨어뜨리게 된다.

데구르르르르

애디는 눈이 동그래지며 깜짝 놀란채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온다.

‘어흑! 고장난건 아니겠지?’

나침반은 상체 높이까지 두둥 실 띄어져 있었고 공중에는 희미한 방향을 가르키고 있었다. 애디는 애니멀 디펜서 팀을 불러 모으며 나침반이 가르키는 방향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S7-2 신록의 정원 근처

“우와 빛난다 신기해~”

스콜피아는 나침반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친다.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작동시킨거야 애디?”

래비도 처음 보는 형상에 놀라며 애디에게 물어본다.

‘사실 대로 말하면 혼나겠지?’

“그냥 뭐 어찌다 보니 알아서 켜지던데?”

애디는 래비에게 떨어뜨려서 작동됐다고 말하면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어영부영 래비에게 대답했다.

“식식식 애디의 심박수가 조금 빠른데?”

스네이키는 애디의 변화를 눈치채고 능청스럽게 말한다.

#S7-3 신록의 정원

나침반이 가리킨 방향에 도착하자 나침반은 신록의 정원 세계수 ‘이그드라실’을 가르키고 있었다.

“음.. 이그드라실? 왜 이세계수를 가르키고 있지?”

래비는 ‘이그드라실’ 앞에 도착하자 의문을 품으며 말했다. 그러자 스콜피아가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

“뭐 세계수에서 나왔으니까 세계수로 가란거 아닐까요?”

나침반을 들고 '이그드라실' 앞에 서자 '이그드라실'의 중앙에 박혀있는 태초의 정수가 빛이나며 공명하더니 차원이 갈라지며 애니멀 디펜스는 우주와의 연결을 경험하게 된다.

#S8 조디악 갤럭시

공허한 우주 속 애니멀 디펜서 발밑에는 은하수가 반짝이며 그들을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있고 자주 봐왔던 지역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지역과 생전 처음보는 공간 등 다양한 모습의 차원의 틈이 살짝 보인다.

눈에는 별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별자리로 구성된 의자에 앉은 채 멀리서 성좌 아스트라이오스가 애니멀 디펜서 앞으로 다가온다. 애니멀 디펜서는 무섭다고도 느끼지 못할 만큼 신격의 존재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아스트라이오스를 쳐다본다.

‘별의 미래를 지킬 수호자들이여!’

아스트라이오스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애니멀디펜서 모두의 머릿속에 말이 들린다.

“우와아아앗 신기하다 머리가 울려요!”

스콜피아는 은하수를 펄쩍펄쩍 뛰다가 우주 속에 떨어질 뻔 하지만 아스트라이오스가 가볍게 손짓 하자 별의 힘으로 스콜피아를 구한다.

“스콜피아! 조심해 이런데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래비는 스콜피아를 크게 걱정하며 혼낸다.

‘하하 그렇지 끝없는 차원의 길에서 잃어버린다면 만반의 윤회속에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군.’

아스트라이오스는 호탕하게 웃다가 금세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을 잇는다.

‘다름이 아니라 자네들의 세계는 곧 다양한 이계의 존재들이 점점 생겨날 걸세’

아스트라이오스는 장엄한 얼굴로 차원을 가르며 멸망하고 폐허가 된 차원들을 보여준다.

‘보다시피 이 수많은 차원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국엔 끝나나지!’

‘하지만 자네들의 차원에는 아직 순수한 태초의 정수가 있더군. 많은 생명체들이 그 태초의 정수를 노릴테야!’

‘여기서 당장 내가 해줄 수 있는건 이것 뿐이겠군’

아스트라이오스가 손짓하자 스콜피아와 스네이키의 주변에 신비로운 별의 힘이 깃드며 몸에 문양이 새겨진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 보세요 뭔가 힘도 넘치고 모습도 변했어요”

애디와 래비는 둘을 쳐다본다. 스콜피아는 집게를 흔들며 신난 모습이 보이고 스콜피아의 집게에 전갈자리의 문양이 생기며 외형이 변한 모습이 보인다. 스네이키의 외형도 변하였지만 스네이키는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스트라이오스는 방황하는 스네이키를 알아차리고 조언을한다.

‘뱀의 형상을 한 자여 자네는 아직 완전히 다룰순 없을게야 아직은 미숙해 보이지만 강한 힘이라 차차 익숙해 져야 할 테지!’

‘다양한 차원의 파편과 별에 에너지가 담긴 물건을 가져다 주게 그것의 힘으로 자네들에게 힘을 부여해주지’

‘앞으로 다가올 위협적인 이계의 존재들로부터 별의 미래를 지켜 주게나 나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네.’

아스트라이오스는 애니멀 디펜서에게 부탁과 조언을 하며 차원을 닫고 그들을 원래 있었던 곳으로 보내준다.

#S9 신록의 정원

조디악 갤럭시에서 돌아온 애니멀 디펜스는 차원을 건너 뛰는 낯선 기분을 느끼며 신록의 정원에 도착한다. 하지만 신록의 정원은 어딘가 낯설고 분주해 보인다.

애니멀 디펜서를 발견한 돼지 피기가 나타나 그들에게 부리나케 뛰어오며 소리친다.

“너희들 도대체 3 일동안 어디갔었던 거냐 꿀 찾고있었다꿀!”

애니멀 디펜서는 3 일이란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란다.

“방금까지 10 분도 안지난거 같은데 3 일이나 지났다고?”

애디는 큰 목소리로 화들짝 놀란다. 그러자 래비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한다.

“다른 차원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피기 무슨일인데?”

“지금 언데드랑 인간이랑 기계랑 아무튼 곳곳에서 숲을 침범하고 있다꿀!”

피기는 허둥지둥 그들을 데리고 전장을 향하며 대답한다.

“식식식 돌아오자마자 설틈이 없구만.”

스네이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기어간다.

“지금 마을에 남아있는 전투에 강한 동물들이 막고는 있다꿀 가장 먼 북쪽은 발이 빠른 말인 홀스씨가 막고있고 매드카우씨는 지금 흥분해서 전장 이곳 저곳을 넘고 다니며 싸우고 있어서 어디계신지 모르겠다꿀 열정 넘치는 개 핫도그님은 지금 3 일째 잠도 안자고 동쪽에서 싸우고 있다꿀!”

“그럼 애디랑 스네이키가 북쪽으로 가고 스콜피아랑 나랑 피기 셋이 동쪽으로 두팀으로 나눠서 지원하러 가자”

래비는 상황을 듣고 최대한 빨리 전략을 생각해내며 지시를 내린다.

“에에엑 나도 가는 거냐꿀!”

피기는 매우 놀란채로 겁먹은듯이 래비에게 말한다. 그러자 래비가 소리친다.

“그럼 어디에서 밥이나 먹고있을려고? 도와야지!”

“지금도 어디선가 쿨캐츠님은 자고 있을텐데꿀...”

피기는 항상 어디선가 자고 있는 고양이인 쿨캐츠를 떠올리며 래비에게 안들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S10 이스트 그로브 동쪽

이스트 그로브 동쪽 끝 언데드와 개종족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막사 내부엔 뛰어난 두뇌로 작전을 지휘하고있는 쥐 종족의 대표 마우츠가 지도를 펼친 채 고민하고 있다.

“마우츠님!!”

래비는 막사안에서 마우츠를 발견하여 소리친다.

“오오~ 래비! 반가운 얼굴이구나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내 생각엔 고대 유물을 구하고 사라졌었으니까 잠시 다른 공간이나 다른 시간속에 갔다고 생각을 했단다. 고대

유물은 굉장히 알수없는 힘이 담겨.. 이게 아니지 일단은 이제까지 북쪽에서만 침입이 이루어져서 동쪽엔 병력이 그렇게 많지않았는데 다행히 핫도그 그 친구가 활약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막고 있었는데 지원군이 도착하다니 상황이 아주 괜찮아"

래비는 마우츠의 빠른 말소리에 잠깐 정신을 못차린다.

"일단은 이 언데드 녀석들은 내가 분석한 결과로 물리적인 공격보단 마법의 힘이 더 치명적인걸로 보여 우리 쥐종족은 전투보단 지원 마법에 특화 되어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지만 핵심적인 공격이 없어 소모전으로 길게 이어져서... 이게 아니지 마법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래비 너가 와서 아주 다행이야! 그럼 일단은 핫도그를 도와 막고 다시 오겠니 래비?"

래비는 마우츠의 말을 듣고 이내 전장으로 나선다

전장에서는 많은 쥐종족들이 전장의 가장 앞에 있는 병력에게 지원과 치유를 해주고 핫도그가 이끄는 개종족들은 언데드들의 뼈를 뽑아 광전사 처럼 휘두르고 있다. 스콜피아는 별의 힘 황도 12 궁의 힘으로 다가오는 언데드를 제압하고 피기는 특유의 내구성으로 언데드를 저지한다. 래비는 십이간지의 힘을 개방해 강력한 마법으로 전장을 마무리 하고 피기와 스콜피아에게 마을의 재건을 부탁하고 북쪽으로간 애디와 스네이키를 지원하러 간다.

#S11 이스트 그로브 북동쪽

이스트 그로브 북동쪽 언데드는 잘 보이지 않고 기계 몬스터와 소수의 인간들이 보인다. 전장에서 날뛰는 소 종족들과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양 종족들이 보인다.

"음무우우우우우!!"

소 종족의 대표인 매드카우가 큰 울음소리를 내고 도끼로 적들을 리드미컬하게 내려친다.

“매드카우씨 조금만 진정하고 싸워주세요오... 조준 하기 힘들어요오..”

양 종족의 대표인 쉬퍼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울먹거리며 버프를 건다.

싸우는 도중에도 기계 몬스터들은 인간이 보이면 공격을 하고 적과 아군이 모두 정신없는 혼란스러운 전장 그 자체였다.

래비는 매드카우와 쉬퍼랑 함께 혼란스러운 전장을 마무리하게 된다.

“래비씨도 고생하셨어요오.. 북쪽은 아직도 전투가 진행중이니 어서 지원하러 가요오...”

쉬퍼는 래비에게 회복 주문과 버프 주문을 걸며 다정하게 말한다.

“고마워요 쉬퍼씨! 그럼 일단 회복하고 가볼까요 매드카우씨? 매드카우씨??”

래비는 회복을 받으며 매드카우를 부르지만 매드카우는 흥분 한 채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 어디론가 가신 모양이에요오...”

쉬퍼는 울먹이며 래비와 함께 북쪽으로 향한다.

#S12 타이거 타운

이스트 그로브 북쪽 기계들은 자신들의 종족이 공격 받은 것에 분노한 듯 난폭하게 타이거 타운을 침략하고 있었다. 호랑이 종족들과 말 종족들이 막고있지만 많은 양의 군대와 난폭해진 기계를 막기 힘들어 하고 있다.

그때 애디와 스네이키가 도착하여 지원하며 싸우게 되고 침략이 마무리 될쯤 래비와 쉬퍼가 합류하게 된다.

“애디 거의 다 정리 된거야?”

래비와 쉬퍼가 멀리서 뛰어오며 래비는 주변 상황을 보며 애디에게 묻는다.

“그래 이녀석들 본인들의 종족이 공격당해서 그런지 나랑 비슷하게 생긴 호랑이들만 집요하게 노리더군 많은 인원이 다쳤지만 빨리 끝나서 다행이야..”

약간은 어두운 표정으로 지친 몸을 쉬고있는 애디가 대답하고 옆에있던 스네이키가 어딘가 쓸쓸하게 말한다.

“식식 교묘하게 아픈 부분만 공격하는게 뱀같은 부분이 있더군”

“그럼 일단 마을 동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러 가보겠습니다.”

전투는 승리했지만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말 종족의 대표 홀스가 승리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신록의 정원을 향했다.

Chapter 4 빛과 어둠의 나무

큰 전쟁이 끝나고 신록의 정원에서 휴식을 하던 애니멀 디펜서는 차원의 갈라짐을 가장 먼저 느끼고 밖을 나간다. 머지않아 하늘에 커다란 빛과 에너지 충돌되며 차원이 갈라지며 섬 2개가 대륙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생긴다.

북쪽의 하늘섬 루미나리아는 빛의 나무 세피로트와 세피로트 나무를 섬기는 존재 세피라가 존재하고, 남쪽의 하늘섬 카오시아는 어둠의 나무 클리포트와 클리포트 나무를 섬기는 존재 클리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S13 루마나리아

아름답고 평화로운 빛의 섬 루미나리아 그곳에 심어져있는 빛의 나무 세피로트 내부 순백의 모습을 띄고있는 세피라의 여왕 세피라트가 세피르들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결국 이 전쟁은 차원을 넘어서 까지 이어 지겠군요. 저희를 도와 혼돈을 가져오는 클리파를 막을 생명들을 찾아 도와주세요.”

“네 여왕님”

수 많은 세피라들은 천사의 형상을 띄며 순백의 날개를 펼치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S14 카오시아

절망적이고 혼돈스러운 어둠의 섬 카오시아 그곳에 심어져있는 어둠의 나무 클리포트 내부 칠흑의 모습을 띄고있는 클리파의 군주 클리브엘이 클리파들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하여간 여기까지 날 방해 할 셈이군 세피라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가 담긴 생명에게 힘과 계약을 진행시켜라”

“네 군주님”

수 많은 클리파들은 악마의 형상을 띄며 악마의 날개를 펼치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세피라들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는 동물들을 선택하며 빛의 힘을 부여하고 어둠의 존재 클리파를 대적하게 되고 클리파들은 세상의 파괴하는 언데드와 기계에게 힘을 부여하고 고도의 탐욕을 가진 인간들을 상대로 계약을 해 더욱 강력한 힘을 부여하게 된다.

빛과 어둠의 전쟁은 끝이 날줄을 모르며 동물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며 어둠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수 많은 모험과 여정을 떠난다.